

'차세대 중심타자' 파워 대결

KIA-롯데 사직 3연전



타격으로 고교무대 평정했던 KIA 최원준·롯데 한동희 부진한 성적에 씩씩한 2군행 한동희 먼저 1군 성공적 복귀 두 달만에 최원준과 맞대결

사직구장에서 '차세대 중심타자' 들의 파워 싸움이 전개된다.

KIA 타이거즈가 8일부터 사직 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t 위즈와의 주중 3연전에서 '원정 열세'를 만회한 KIA는 롯데 안방에서 원정 승률 높이기엔 나선다. 올 시즌 1승 3패로 뒤져있는 상대 전적도 끌어올려야 한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는 두 팀. 타선의 미래인 KIA 최원준과 롯데 한동희에 눈길이 간다.

최원준은 서울고를 졸업하고 KIA 유니폼을 입은 고졸 3년 차. 한동희는 경남고를 졸업하고 올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든 루키다.

타격으로 고교 무대를 평정했던 최원준과 한동희는 각각 2차 1번, 우선지명을 받으며 입단한 '대어'들이다. 하지만 남다른 타격 실력에 비해 부족한 수비가 약점으로 꼽힌다.

앞선 맞대결에서 기록된 두 사람의 타율은 '0'이다.

최원준은 4월 13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부상에서 빠진 이범호를 대신해 3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그러나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했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세 번째 타석에서 상대 실책으로 출루해 1득점을 올린 게 전부다.

한동희도 KIA전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4월 13일 광주 경기서 대타로 나와 2루수 명물로 물러났고, 5월 2일 사직 경기에서는 3루수 겸 7번 타자로 나왔지만 역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다. 삼진 두 개와 병살타를 남기며 고개를 숙였고, 두 개의 실



KIA 최원준



롯데 한동희

책까지 기록하면서 결국 다음 날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두 사람은 '인내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됐다.

KIA전 부진으로 퓨처스리그행을 통보 받았던 한동희는 지난달 27일 1군 엔트리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퓨처스리그 17경기에서 타율 0.455를 기록했고, 홈런도 7개나 기록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인 끝에 1군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6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두 번째 3안타 경기를 했다. 또 프로 데뷔 첫 만루포까지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최원준도 퓨처스리그에서 꺾을 잡았다.

지난 4월 27일 타격 부진 등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최원준은 허벅지 부상이 겹치면서 더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지난 1일 퓨처스 경기를 통해 22일 만에 그라운드로 복귀한 최원준은 7일 1군 홈업을 받으면서 새 출발선에 섰다.

아직은 거친 타격과 불안한 수비의 두

사람이지만 팀은 물론 리그를 대표할 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재목들이다.

앞선 맞대결에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최원준과 한동희가 퓨처스에서 보낸 '인내의 시간'을 발판 삼아 팀 승리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북한 유도

동아시아선수권 단일팀 출전

한국 유도 대학연맹 선발팀이 오는 9일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2018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북한과 단일팀으로 출전한다.

대학유도회는 7일 "대학연맹 선발팀이 오늘 몽골로 출국했다. 현지에 도착해서 북한 측과 단일팀 구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대회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동아시아선수권대회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몽골 등 8개국으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동아시아유도연맹과 몽골유도협회가 대한유도회에 남북 단일팀을 꾸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유도회 관계자는 "남녀 단체전 종목에서 단일팀이 우선으로 이뤄질 것이다. 다만 개인전도 '코리아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출전할 수도 있다"며 "출전국이 체급로 1명씩만 출전시킬 수 있지만 동아시아연맹이 적극적으로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는 만큼 '코리아팀'이 꾸려지면 체급별로 남북 선수가 각각 1명씩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22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볼넷 1개를 얻어내 2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연속 안타 기록은 12경기에서 끊겼다.

추신수는 7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와 홈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무안타에 1볼넷 2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 볼넷으로 22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추신수의 최고 기록은 2012~2013년 2년에 걸쳐 작성한 35경기 연속 출루다.

추신수는 오를랜드 우완 선발 다니엘 멘덴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골라냈으나 이어진 병살타로 추가 진루에는 실패했다.

2회말 2사 2루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4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파울업 삼진을 당했다.

6-2로 앞선 7회말 1사 1루에서는 잘못된 타구가 좌익수 정면으로 향해 아쉽게 안타를 놓쳤다.

텍사스는 홈런 4방을 몰아치면서 8-2 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두산 이영하 '승부조작' 거부했다

두산 베어스 우완 이영하(21·사진)가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으나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은 7일 "이영하가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곧바로 구단에 알렸다. 이영하는 빠르고 올바른 판단을 했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KBO는 5월 초 승부조작 제보를 접수하고, 5월 18일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선수, 이를 보고한 구단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과 이영하는 자신 있게 전면에서 나섰다. 승부조작 제의를 거부한 덕이다.

두산은 "이영하는 4월 30일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 브로커가 '경기 첫 볼넷'을 제의했고 이영하는 브로커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표시를 한 뒤 전화를 끊었다. 동시에 상대방 번호를 차단했다"며 "이 브로커가 5월 2일에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했다. 이영하는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구단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산 구단은 내부적으로 사대 파악에 나섰고 이 브로커가 타 구단 선수와도 접촉할 수 있다고 판단해 KBO에 알렸다"고 신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KBO는 승부조작 접수 후 10개 구단에



이런 제의를 선수들이 받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각 구단의 선수 면담을 거쳐 아직 문제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초 승부조작 브로커가 선수들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각 구단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KBO 클린베이스본센터는 각 구단에 배정된 클린베이스본센터 상담 요원을 통해 선수 일대일 면담을 마치고 브로커 추적과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의 브로커는 20대 초반으로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한 수도권 학교 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몇 년 사이 일부 몰지각한 선수들의 승부조작 연루와 이를 은폐하려던 구단의 부도덕한 행위로 KBO리그는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경기 조작의 큰 풍파에서 겨우 벗어난 KBO 사무국과 각 구단은 또다시 검은 유혹이 야구판을 덮치지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강정호 ML 복귀 가까워지나... 싱글 A 또 홈런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마이너리그 싱글 A 무대를 폭격하고 있다.

피츠버그 산하 싱글 A 브레이튼턴 머로더스에서 뛰는 강정호는 7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튼턴 레이크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파이어 프로그스(애들랜트 브레이브스 산하)와의 홈 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렸다.

강정호의 유일한 안타가 바로 홈런이었다.

1회말 1사 1루에서 내야 뜬공으로 물러난 강정호는 4회말 선두타자로 상대 좌완 선발 터커 데이비스를 다시 마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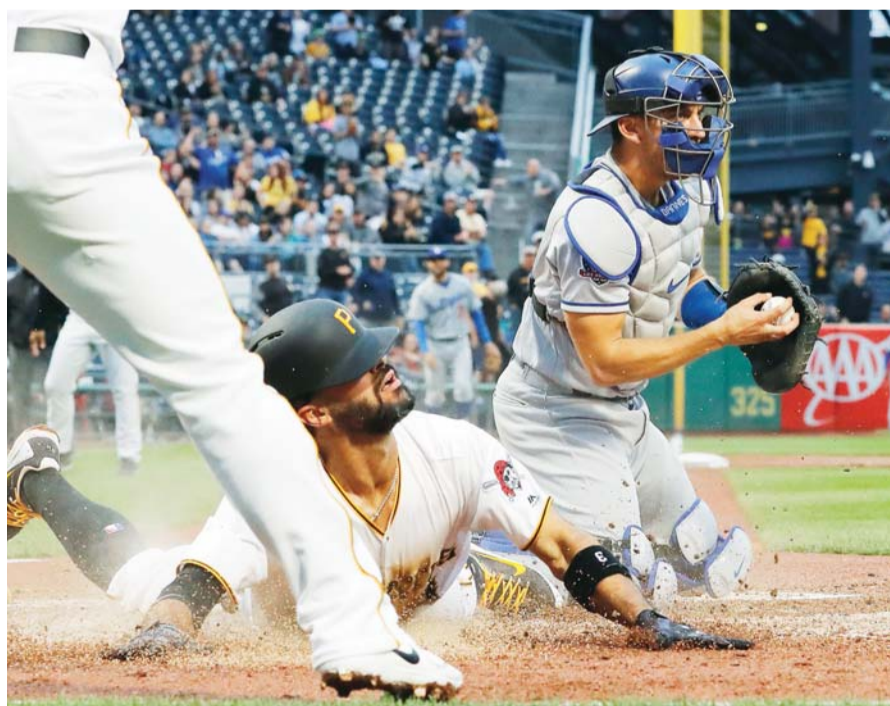
강정호는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5구째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넘겼다. 싱글 A 5경기에 출전해 벌써 3번째 홈런을 쳤다.

강정호는 5회말 1사 1·2루에서는 3루수 방면 병살타, 8회초 1사에서는 좌익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강정호의 싱글 A 타율은 0.462에서 0.412(17타수 7안타)로 살짝 내려갔다.

브레이튼턴은 2-2로 맞선 9회초에 결승점을 내주고 2-3으로 패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취업 비자를 얻어 지난달 2일 팀의 스프링캠프 시설이 있는



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경기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선 로드리게스(왼쪽)가 2회말 홈으로 들어오며 득점하고 있다. 이날 다저스는 사사구 13개를 남발하며 피츠버그에 9-11로 패했다. 이로써 다저스는 연승 행진을 4경기에서 마감했다. /연합뉴스

브레이튼턴의 파이리츠시티에 합류한 강정호는 지난주부터 상위 싱글 A 경기에서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강정호는 싱글 A에 이어 더블 A, 트리

플 A 등 마이너리그 상위 리그를 차례로 경험하고 빅리그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한화 정우람 월간 MVP



5월 KBO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한화 이글스 마무리 정우람(사진)이 "상금을 팬들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다.

7일 정우람은 "사실 김현수(LG 트윈스)가 MVP를 받을 줄 알았다.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뗀 뒤 "취재진과 팬들의 투표로 MVP를 선정했다고 들었다. 팬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 기쁘다"고 웃었다.

정우람은 기저단 투표에서 30표 중 22표(73.3%)를 받았고, 팬 투표에서도 7만441표 중 3만4719표(49.3%)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 총점 61.31점으로 MVP의 영예를 안았다.

정우람은 자꾸 몸을 낮췄지만, 자격은 충분했다.

정우람은 5월 한 달간 12경기에 출전해 1승 11세이브 평균자책점 0.77로 호투했다. "마무리 수난 시대"에 한화 마무리 정우람만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정우람은 상금 2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를 받는다. /연합뉴스